

광주시교육청, 수제 마스크 제작 의뢰

양동시장 영세 상인에 의뢰하여 마스크 제작 학생들 건강도 지키고 지역경제도 살려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양동시장 영세 상인들에게 면 마스크 16만 장 제작을 의뢰했다. 특히 양동시장 상인들은 지난달 23일 1차로 주문했던 소아용 면 마스크 6만 장을 지난달 31일 납품 완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비축용 보건마스크 62만 장, 보급용 일반마스크 26만 장, 면마스크 41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교육

청은 이중 면마스크 16만 장을 양동시장 영세 상인들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고 지난 3월23일 1차로 6만 장을 주문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추가로 10만 장을 주문했다. 특히 면 마스크 1장의 단가는 1750원으로 16만 장의 전체 금액은 2억8000만 원에 달한다. 마스크 만들기에 참여한 양동시장 한 상인은 “코로나19로 방문하는 손님이 없어 매출이 크게 떨어졌는데, 시교육청이 면 마스크 제



작을 의뢰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생각하니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담양교육청, 원격교육 현장 목소리 듣다

담양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된 담양 남초와 담양중을 방문하여 원격수업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담양남초는 4학년을 대상으로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담양중은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여 학급별 라인 반을 개설하여 전 교과 선

시간에 준한 운영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학생들의 참여 시간이 다소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교사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수업컨텐츠가 많지 않은 교과 선

생님들의 고민도 들을 수 있었다. 이정희 교육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개학이 늦어지면서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보면서 담양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었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양교육청 화훼 농가 돕기 ‘플라워 버킷 챌린지’ 참여

광양교육청은 광양시장의 지명을 받아 ‘플라워 버킷 챌린지 운동’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 등 소상공인들을 응원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 운동’은 코로나19로 졸업·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꽃바구니 전달 릴레이 운동이다. 광양시장은 조정자 교육장을 지명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체에 중사하는

분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정자 교육장은 꽃바구니를 전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다소 무거워진 사회 분위기가 봄꽃으로 한층 밝아지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른 곳들도 참여해 고통을 뉘이면 한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되기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 더 큰 성장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자 교육장은 다음 주자로 광양서초등학교 및 광양중학교 교장을 지명했다. **동부권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급별 온라인개학 준비 구체화

구글클래스룸, MS팀즈, ZOOM 통한 쌍방향 실시간 수업 병행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전국 유·초·중·고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아 학교 급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원격수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31일 정부의 온라인 개학 발표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갖고, 초·중·고 학교 급별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원격수업 시행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원격수업은 크게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자기주도 활동 수업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 등으로 나뉘며, 학교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우선, 전남 일선 학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 활용 중심수업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함으로써 정규수업에 준하는 원격수업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콘텐츠 중심 원격수업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남 e-학습터 또는 ZOOM, 중학교는 EBS온라인클래스 또는 전남 e-학습터, 고등학교는 EBS온라인클래스 또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했다. 현재, 전남 e-학습터에는 모든 초·중학교의 학급방이 개설돼 있어 과목별 영상을 활용한 원격수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현재까지 주

로 이뤄져온 단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원격수업을 뛰어넘어 이번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권장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최근 구축한 ‘전남 에듀테크 교육서비스’ 시스템이 활용된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학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토론과 과제제시, 화상수업까지 가능한 원격교육 플랫폼이다. 향후 전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ZOOM, 구글 클래스룸(행아웃), MS팀즈 등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교원 연수를 주 1회 생방송과 재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허성은 기자**



신안교육청 개학연기 속 도서대출 ‘훈훈’

신안교육청 순회사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를 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사태를 맞고 있는 1004섬 섬드리 작은 시골 학교에 책을 읽고 싶은 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신안교육청 순회사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 한 후, 도서 대출 희망자에 한하여 학년 별로 요일 및 시간을 달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였다. 비급초 우서윤 학생(4학년)은

개학전에도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서비스 전남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DLS)을 통해 도서 대출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 지식의 폭도 넓힐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학부모님도 직접 학교 방문을 하여 도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속에서 도서대출을 통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서비스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안=정승호 기자**

전남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 대안교육 강화 모색



전남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청사 5층 상황실에서 시·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업무 전반에 대한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권역별

컨설팅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 권역별 연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관 협의체 운영 △학업중단 예방 교원 연수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은 “제법 많은 양의 전달사항과 협의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배포된 회의 내용을 숙지하고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영상회의의 한계를 극복했다.”며,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 지역청에서 보다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허성은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